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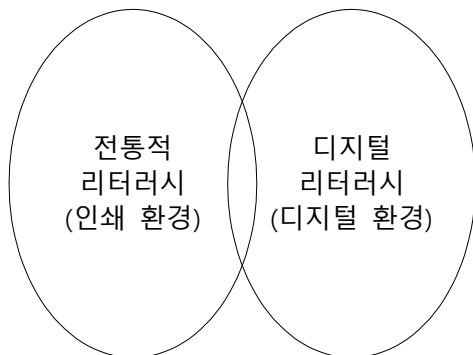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내용 요소 개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종윤(진주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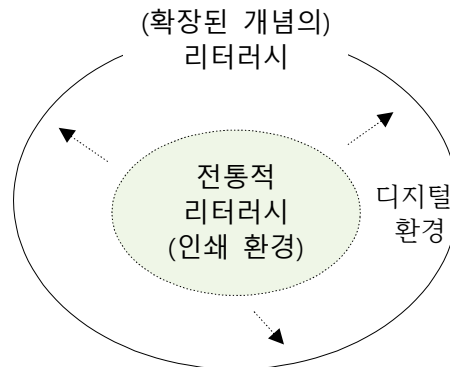
교육에는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으나 그중 하나는 미래를 살아갈 후속세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하며, 교양인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래 사회의 핵심적 의사소통 능력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중요한 교육내용 중에 하나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연구 분야의 핵심 전문가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수행하셨고, 본 발표에서도 지금까지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잘 설명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많이 배우면서, 토론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핵심 내용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사소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종래의 읽기와 쓰기가 전통적인 인쇄매체 기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로 된 책, 보고서, 신문을 읽거나 원고지를 쓰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매개하여 읽기와 쓰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리터러시의 개념역이 확장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으로서 드는 생각은 이 디지털 기반의 리터러시 부분을 기존의 전통적 인쇄 기반의 리터러시와 구별되는 별개의 리터러시로 볼 것인가(아래 그림 [가]), 아니면 리터러시의 개념역 자체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아래 그림 [나])입니다. 아마 학술적 입장과 교육·실용적인 부분에서 입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 전통적 리터러시와 대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나) 새롭게 확장되는 리터러시의 하위 내용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오는 두 번째 의문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그 유관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하는 지점입니다. 발표자께서는 ‘2)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시는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정현선 등, 2016),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장의선 등, 2021)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상이한 기표로서의 용어가 동일한 기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표자의 다른 의도와 고민이 있으신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드는 의문은 이 세 유관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 요소가 상이한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자기조절, 정서, 자기 조절, 참여(또는 [인식] 가치, 자기효능감, 정서) - 행동: 자기조절, 참여, 윤리, 보안, 비판적 읽기 - 인지: 탐색, 해석과 통합, 평가, 설계, 제작,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체험 - 미디어 지식 - 의미 이해와 전달 -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 감상과 향유 - 미디어 기술 활용 - 정보 검색과 선택 - 창작과 제작 - 사회·문화적 이해 - 비판적 분석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과 선택 - 이해와 분석 - 의사소통과 생산 - 공유와 참여 - 감상과 향유 - 반성과 성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각 개념의 하위요소가 중첩되기도 하지만, 변별되는 지점들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 내용화 한다면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발표자께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내용을 추출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복합양식성의 문제

디지털 기술이 매개되므로, 리터러시의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차피 둘 다 언어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의 성취기준이나 내용에서 언급된 복합양식성을 리터러시의 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궁금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명해보일 수도 있겠으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은 매우 다른 양태를 지닙니다. 언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이미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니까요. 일부 관습적인 시각 자료(지도, 그래프)의 경우 이들은 (제목이나 캡션과 같은) 언어가 의미를 정박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내용을 해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읽는 방식은 텍스트를 읽는 방식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미끄러지고 부유하는 성질이 있어서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텍스트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독립적이